

## EU 국가의 육아 지원 인프라와 출산율 현황

- 본고는 EU 국가의 육아 지원 인프라와 출산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우리나라 육아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함

- 출산율이 높은 EU 국가 대부분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공식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육아 휴직 및 탄력 근로제와 같은 노동 시장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결과로 파악됨

-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 육아 지원 정책은 출산율 회복,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 통합의 추구라는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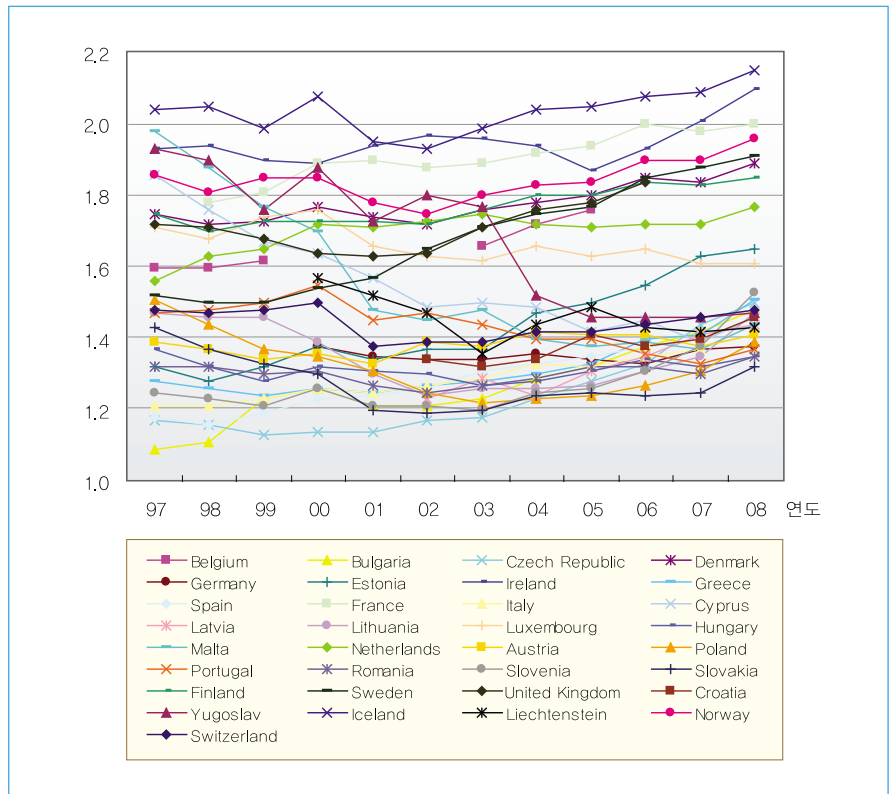
### 1. EU 국가의 출산율 및 여성 경제 활동 현황

□ 199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던 EU 국가의 출산율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 1990년대 후반 출산율이 2.0명 이상인 국가는 아이슬란드 밖에 없었으나 2008년에 아일랜드(2.1명), 프랑스(2명), 노르웨이(1.96명), 스웨덴(1.91명)이 인구대체수준 혹은 그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임

○ 현재 초저출산 수준(1.3명)을 보이는 국가는 헝가리(1.35명), 루마니아(1.35명), 슬로바키아(1.32명) 등 대부분 동구권 국가

[그림 1] EU 국가의 출산율(1997~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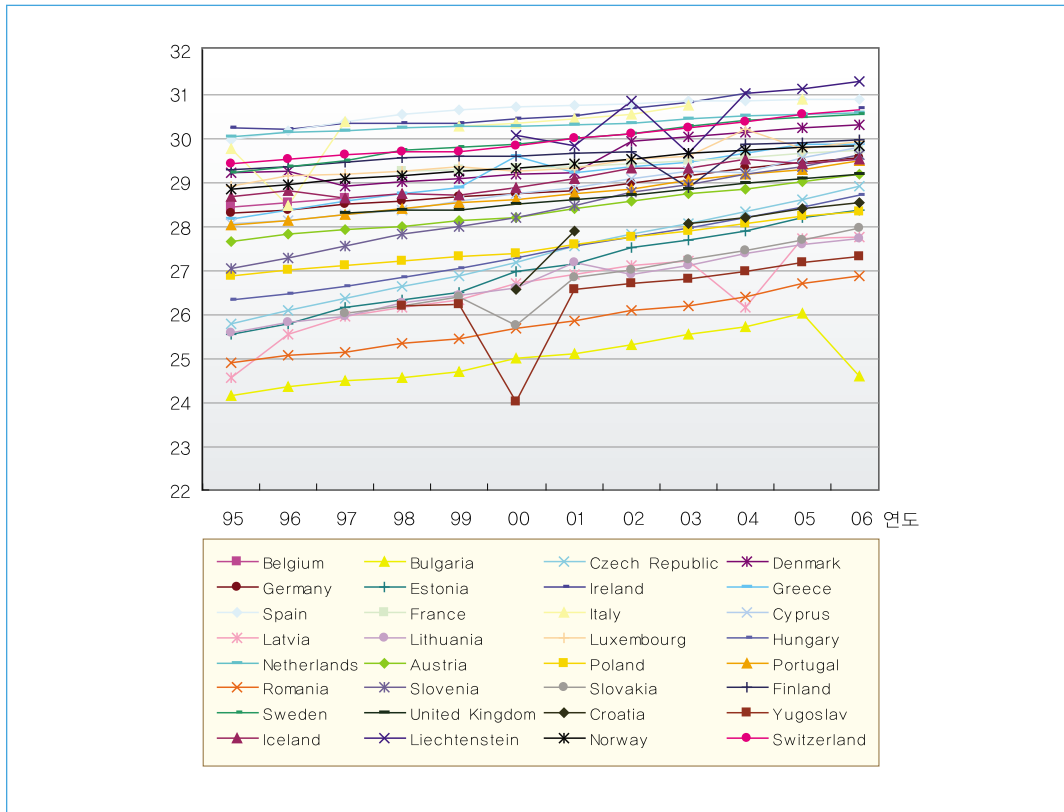


자료: eurostat(2009) <http://epp.eurostat.ec.europa.eu>

□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의 초산 연령은 1995년부터 점차 상승하여 2006년 거의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25세가 넘고 있음

○ 2006년 현재 초산 연령이 높은 국가는 리히텐슈타인(31.27세), 스페인(30.88세), 이탈리아(30.87세), 아일랜드(30.66세), 스위스(30.64세)이며, 25세 이하인 국가는 불가리아(24.57세) 한 국가임

[그림 2] EU 국가의 초산 연령(1995~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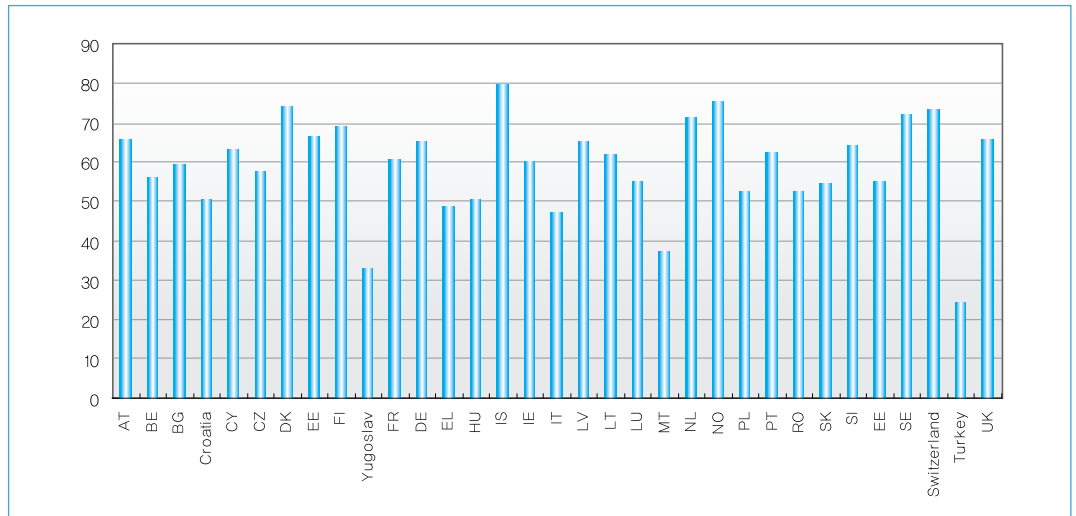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2009) <http://epp.eurostat.ec.europa.eu>

□ 유럽 연합의 리스본 목표인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60%를 달성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등 18개 국가이며, 50%에 못 미치는 국가는 터키, 유고슬라비아, 몰타, 이탈리아, 그리스임<sup>1)</sup>

-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북부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 역시 높은 수준을 보여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
- 출산율이 낮은 남부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와 동구권 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아 여성이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직장 생활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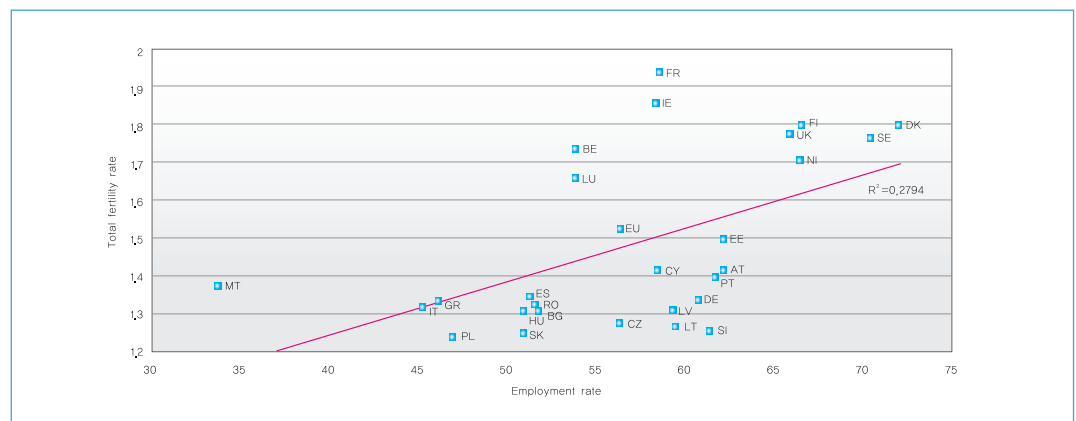
<sup>1)</sup> 유럽 의회는 2000년까지 각국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70%까지 상승시키고 2010년까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60%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리스본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6/2007) "Joint employment report 2007/2008")

[그림 3] EU 국가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2008년)



자료: eurostat(2009) <http://epp.eurostat.ec.europa.eu>

[그림 4] EU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간의 관계



자료: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y - Unit E1 (2009)

## 2. EU 국가의 육아 지원 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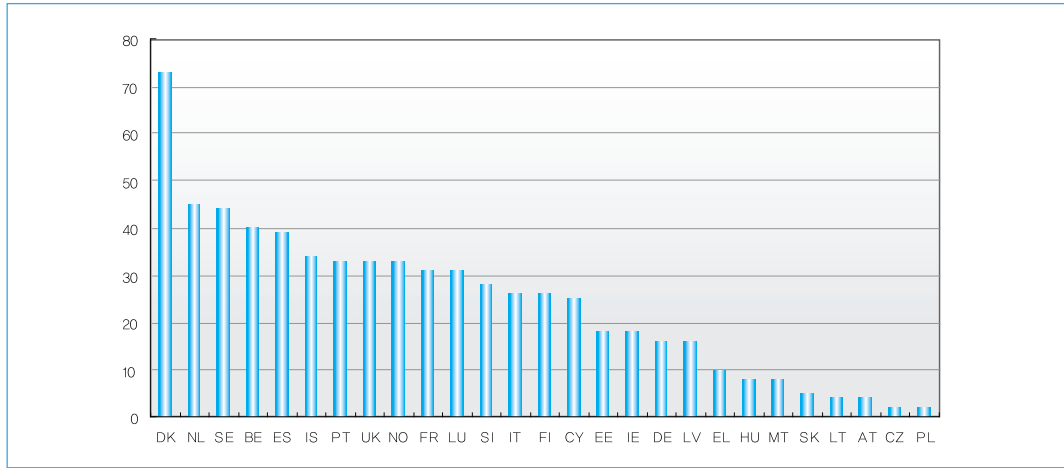
□ EU 집행 위원회는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보육 서비스 이용율을 3세부터 학령기 연령 전 아동의 90%, 3세 이하 아동의 33% 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sup>2)</sup>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영아와 유아 모두 육아 지원 인프라 이용률의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가 많은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출산율이 높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이 대부분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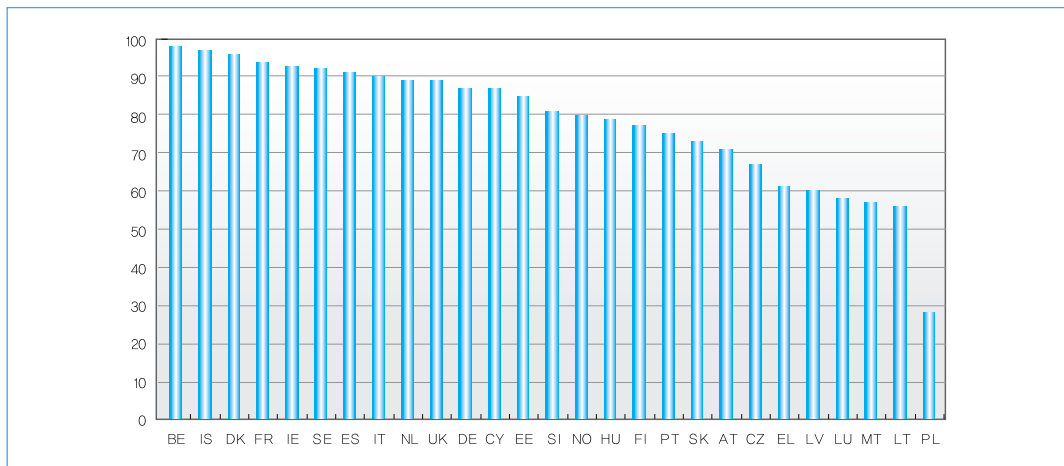
<sup>2)</sup>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6/2007) "Joint employment report 2006/2007"

[그림 5] EU 국가의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률: 0~2세(2006년)



자료: Eurostat, EU-SILC (2006)

[그림 6] EU 국가의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률: 3세~취학전(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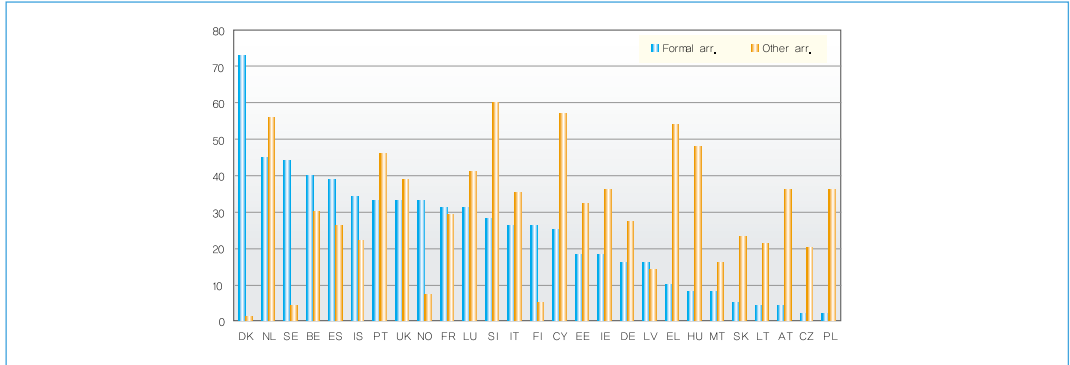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SILC (2006)

-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경우 영아(0~2세)의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의 사용률이 높으며 비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률은 매우 낮음<sup>3)</sup>
  -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영아(0~2세)의 비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 비율이 높고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률이 낮음
- 3세 이상 취학전 유아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3세 이상 아동의 비공식적 육아 지원 인프라 이용률이 거의 0%에 가까움
  -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 라트비아, 몰타, 리투아니아의 경우 3세 이상 아동의 비공식적 육아 지원 서비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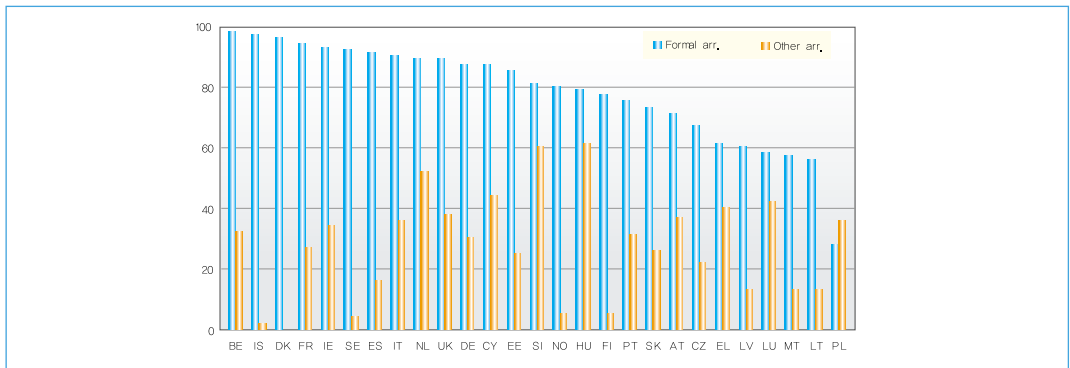
<sup>3)</sup>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에는 pre-school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정규 교육 기관, 방과후 보육 서비스 제공 센터, 보육 시설 (일반 보육 시설, 놀이방, 가정 보육 시설 등을 포함하며, 비공식 육아 지원 인프라는 개인 보육 도우미에 의한 보육, 친인척에 의한 보육, 친구 및 이웃 사람에 의한 보육 등을 포함

[그림 7] EU 국가의 영아(0~2세) 공식 비공식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률 비교(2006년)



자료: Eurostat, EU-SILC (2006)

[그림 8] EU 국가의 유아(3세~취학전) 공식 비공식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률 비교(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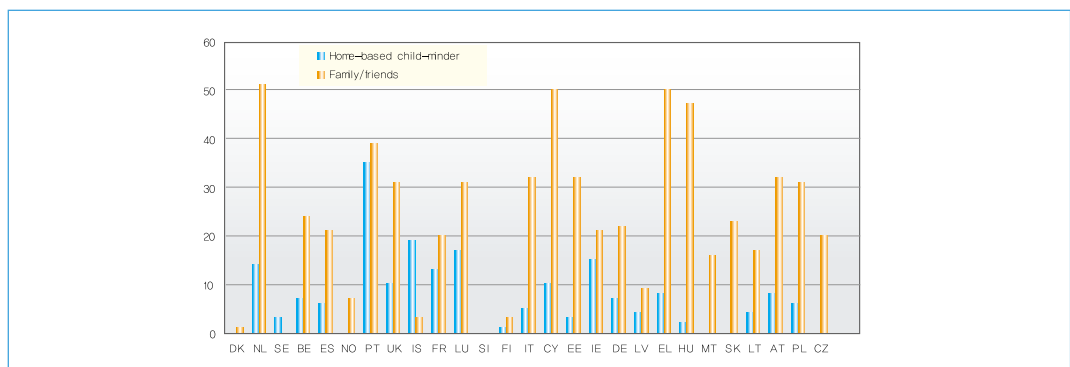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SILC (2006)

□ 영아가 비공식 육아지원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제3자 고용에 의한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친인척에 의한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율이 높은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의 경우 제3자 고용에 의한 가정 내 보육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비율을 보임

○ 포르투갈,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와 같이 대부분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친인척에 의한 자녀 보육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9] EU 국가의 비공식 부문 육아 지원 인프라 이용률(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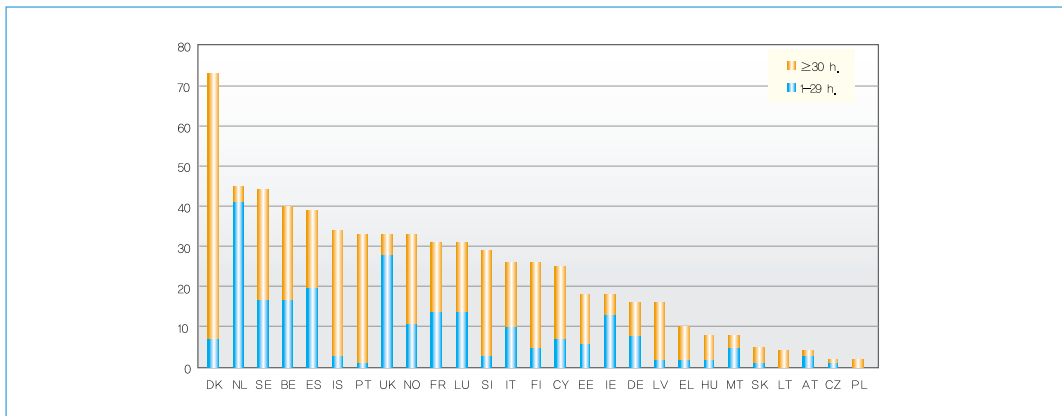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SILC (2006)

□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육아 지원 인프라를 주당 30시간 이상 종일제로 제공하고 있지만 반일제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수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영아의 반일제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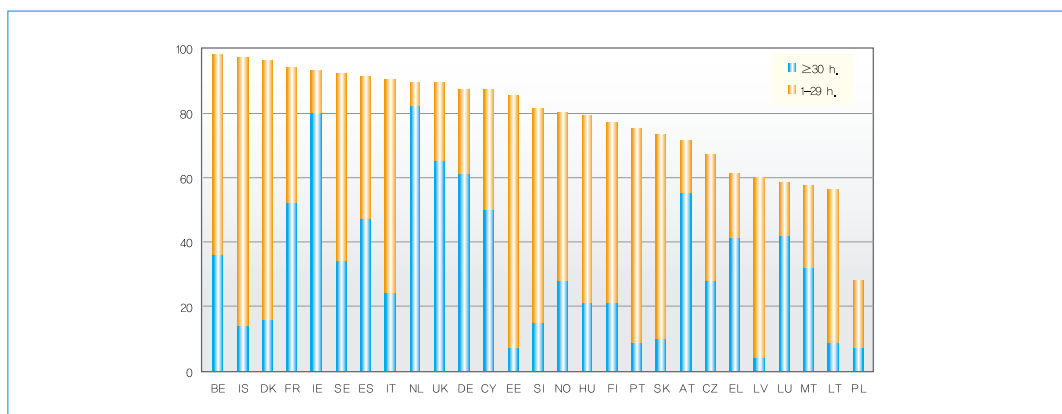
○ 여성의 파트타임 혹은 탄력적 근무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어 반일제 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

[그림 10] EU 국가의 영아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이용 시간(2006년)



자료: Eurostat, EU-SILC (2006)

[그림 11] EU 국가의 유아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이용 시간(2006년)



자료: Eurostat, EU-SILC (2006)

□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 1명당 돌보는 아동의 수가 적게 배치되어 아동 발달 과정에 적합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배려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출산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대부분 아동 연령에 따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보육 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덴마크 2~3세 1:3, 3~6세 1:6, 네덜란드 0~1세 1:4, 1~2세 1:5, 2~3세 1:6, 3~4세 1:8, 핀란드 0~3세 1:4, 3~6세 1:7(종일제), 1:13(반일제), 영국 0~2세 1:3, 2세 1:4, 3~7세 1:8

○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그리스 1:18.5, 스페인 1:10, 리투아니아 1:10, 폴란드 1:15, 슬로베니아 1:9.6, 슬로바키아 1:10.6

[표 1] EU 국가의 학급당 아동수, 교사대 아동 비율

국가	학급당 아동수	교사 대 아동 비율
벨기에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정 보육 시설의 경우 최대 정원은 8명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정 보육 시설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4
불가리아	-	1대 5.9
체코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평균 아동수는 23.1명	1989년 이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1: 12~13명
덴마크	-	2~3세 아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1:3 비율이며, 3~6세 아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1:6의 비율
독일	-	0~2세 아동의 경우 1: 6.4명, 3~5세 아동의 경우 1:10명, 초등학교의 경우 1:10.5명
에스토니아	3세 이하 보육 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한 반 당 최대 14명, 7세 이하 취학전 교육 시설의 경우 한 반당 20명	정확한 비율은 알려진 바 없고, 한 반당 교사 한명과 보조 교사 1명 배치
아일랜드	취학전 교육시설의 경우 한 반당 24명	2006년 현재 0~1세 아동의 경우 1:3, 1~2세 아동의 경우 1:5, 2~3세 아동의 경우 1:6, 3~6세 아동의 경우 1:8
스페인	0~3세 아동의 경우 평균 14.1명, 3~6세 아동의 경우 평균 21명	2005~2006년 현재 평균 1:10
프랑스	보육사는 한 명당 최대 4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음 보육시설에는 한 반당 28~30명	-
이탈리아	-	3~12개월 영아의 경우 1:5~1:6, 1~3세 영아의 경우 1:7~1:10
키프로스	유치원은 한반당 최대 16명	보육사와 보육시설의 경우 1:6
라트비아	0~2세의 경우 12명, 3~7세의 경우 24명	-
리투아니아	평균 10명	2005~2006년 평균 비율은 1:10
헝가리	보육시설의 경우 최대 12명, 유치원의 경우 최대 25명	보육시설의 경우 2:12, 유치원의 경우 2:22명
몰타	가정내 보육사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6명까지 돌볼 수 있음	0~1세의 경우 1:3, 1~2세의 경우 1:5, 2~3세의 경우 1:6
네덜란드	0~1세의 경우 최대 12명, 0~4세 경우 16명, 4~8세 경우 20명	0~1세 1:4, 1~2세 1:5, 2~3세 1:6, 3~4세 1:8
오스트리아	지역마다 학급당 아동수에 차이가 있음. 보육시설의 경우 11~14명, 유치원의 경우 20명, 보육사는 5명	보육시설 1:5, 유치원 1:14
폴란드	한반당 아동수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평균 1:15
포르투갈	보육시설에서는 최대 10~12명, 유치원에서는 최대 25명, 보육사는 최대 4명, 방과후 교실은 20명	보육시설 2:12, 유치원 1:25, 방과후교실 1:15
슬로베니아	1~3세의 경우 최대 12명, 3~6세의 경우 최대 22명	1:9.6
슬로바키아	유치원의 경우 한반당 평균 20.9명 헝가리 언어를 하는 유치원의 경우 평균 17명	1:10.6
핀란드	한반당 아동수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으며 규제 필요성을 논의 중임	0~3세 1:4, 3~6세의 경우 종일제 1:7, 반일제 1:13

국가	학급당 아동수	교사 대 아동 비율
스웨덴	취학전 교실에서는 평균 16.7명, 여가활동센터는 평균 31.7명	취학전 학교는 1:5.1, 여가활동센터는 1:18.9
영국	보육시설 한반당 평균 30~35명 아동 1명당 면적에 대한 기준도 있음	0~2세 1:3, 2세 1:4, 3~7세 1:8
아이슬란드	-	보육사 비율은 1:4
리히텐슈타인	공공보육시설은 최대 20명 (실제적인 평균은 15명), 민간보육시설은 10~13명	취학전 보육학교는 1:14, 보육시설은 1:5
노르웨이	-	0~3세 1:7~9, 3세 이상 1:14~18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A comparative review of 30 European countries"

### 3. 정책 과제

- 1970년대만 하더라도 4.5명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15명의 낮은 수준을 보임
  - 여성 학력 수준의 향상, 가치관 및 성역할의 변화 등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아직도 미비한 실정
  - 육아 지원은 사회적인 변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으로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여성 노동 활동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도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는데 미흡
- 우리나라 육아 지원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율 향상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사회 통합의 추구라는 정책적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 질적, 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와 탄력적인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 시장 정책, 그리고 아동 수당 등 현금 지원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 것임

신윤정(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3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